

백제 30대 무왕행차 재현

익산시, 거리 퍼레이드 전야 축하행사 개최 전국제전 개막 분위기 업

익산시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막식 전날인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영등동 일원과 중앙체육공원에서 무왕행차 거리 퍼레이드 및 전야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무왕행차 거리 퍼레이드는 과거 찬란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30대 무왕의 행차를 재현한 '무왕행차 행렬단', 문화의 도시 익산의 현재의 모습을 담아 읍면동과 기관단체의 특색을 살린 '시민 퍼레이드', 그리고 행복도시 익산의 밝은 미래를 표현한 재기 발달한 율동과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퍼레이드 구간은 영등시민공원부터

아트박스사거리, 전자랜드사거리, 어양사거리를 거쳐 중앙체육공원까지 약 2km 구간으로 총 2,400여 명이 행렬에 참여한다.

무왕행차 행렬단은 취타대, 장군, 문무관, 퍼레이드 카, 귀족, 궁녀, 백성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되고, 시민 퍼레이드단은 20개 읍면동에서 1,000여 명, 28개 기관단체에서 1,250여 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며, 주요 지점마다 다양한 공연과 플래시몹 등 퍼포먼스가 더해진다.

또한 오후 5시부터 이어지는 전야 축하행사는 중앙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식전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어린이 오케스트라단 90여 명이 스포츠 영화음악 OST 합주를, 익산국악원 소속 어린이 명창들이 신명나는 국악가요를 선보이고, 인기 가수 축하 공연에는 강진, 오로라, 서지오, 박일준, 비타민엔젤, 최유나, 이카루스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레이저, 특수조명, 음악, 불꽃 퍼포먼스를 융합한 입체적 연출의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전야 축하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익산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한편, 거리 퍼레이드 진행을 위해 퍼레이드 구간 교통진행이 일부 통제될 예정이다. 통제 일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이며, 백제초등학교~영등시민공원~아트박스사거리 구간과 어양사거리~중앙체육공원 북쪽구 구간은 전면통제, 아트박스사거리~전자랜드사거리 구간은 2개 차로, 전자랜드사거리~어양사거리 구간은 3개 차로 차량 진행이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무왕행차 거리 퍼레이드와 전야 축하행사를 통해 익산시민과 체전 참가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는 차량통제에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

160명 주자 16개 구간 봉송 성공개최·시민 화합 기원

익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힐 성화가 3일 익산시 금마면 마루사지에서 채화됐다.

행사는 채화에 앞서 초헌관으로 정현을 익산시장, 아헌관으로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종헌관으로 이수경 익산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문화원 김복현 고문이사 회를 맡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제례를 봉행하고, 칠선녀의 성무 이후 주선녀가 채화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채화된 성화는 신용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고문을 포함한 총 10명이 봉송 주자로 참가, 마루사지 내부에서 주차장까지 봉송을 완료했고, 이후 차량으로 인계인수돼 전북도청에 7일까지 안치된다.

이어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체전 성화와 함께 주 개최지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봉송하며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를 알린 후, 전국체전 개막식 전날인 11일 익산시로 돌아와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전날인 24일까지 익산시청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국체전의 성화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60명의 주자가 익산시 관내 16개 구간을 봉송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는 25일 오전 10시부터 90명의 주자가 익산시 관내 9개 봉송구간을 거쳐 주 경기장인 익산 종합운동장에 도착하며, 도착한 성화는 개막식과 함께 성화대에 점화돼 5일간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화합을 기원하며 활활 타오르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회의 본격 서막을 여는 성화가 주 개최지인 우리시에서 채화되었다.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상생하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개최식 행사에 참여해 참가 선수단을 응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 발달장애인 교육 토론회

더불어 성장하는 지립형 평생학습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6일 군산시장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발달장애인 학부모 및 평생학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채정룡 지역위원장과 군산 명확화교 교사, 익산시 발달장애인 부모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공교육 정착과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학령기 이후의 과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겐 필요한 교육 복지 등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군산시는 발달장애인 및 학부모,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발전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에는 약 16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발달장애 성인은 1,276명으로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과 미용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에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훈풍 불어다줘

1단계 발행액 200억원 매진 초읽기... 추가 발행

나라로 떨어진 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 상품권의 1단계 발행액 200억 원이 10월 초 매진이 예상돼 2단계 1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3일 발매 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일평균 10억 원 이상씩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매된 지 한달 만에 148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20,080명으로 135억원을 구매해 1인당 평균 67만원을 구매했고 법인은 142개소로 9억원을 구매해 1개 법인당 평균 630만원을 구매했으며 군산시에서 4억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군산사랑 상품권이 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유통된 것은 군산 최초로 시행된 상품권에 대한 기대감과 효과적인 홍보 활동으로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극대화됐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점 72개소, 가맹점 6,700개소 확보 등 상품권 유통체계가 완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라로 떨어진 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1단계 200억 원의 판매를 통해 흐름이 더뎠던 현금이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인출되면서 현금 유통성 효과가 발생했으며, 상품권 발행액 200억원 전체가 지역 내 자금으로 순환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초 상품권 구매자가 1차로 사용하고, 이 상품권이 다시 2차로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촉진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2차 발행분 공급 시기까지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시에서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2차로 10월 15일(월) 110억원을 발행해 판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상품권을 통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고투 해택을 보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2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13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건과 의원발의 4건 등 총 22건을 상정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12일부터 제213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12일부터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는 제213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건과 의원발의 4건 등 총 22건을 상정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비

롯해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중신 위원장은 "시민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등학생이며 시에서는 4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씩 총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학비 지원이 어렵고 다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업성적 우수자 등 조례에서 정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장학금 신청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와 근로자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시 일자리담당관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